

강기정 시장 “지난 4년 광주 변화, 이제 통합특별시로 완성”

“위기의 순간, 광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달랐습니다. 지난 4년의 광주의 변화입니다. 그 중심에 광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시민이 됩니다. 인재특별시, 일자리특별시, 풀뿌리특별시로 더 부강한 기회특별시를 함께 만듭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in) 광주, 우리가 만들어 가는 봄’을 주제로 ‘3월 정례조회’를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조회에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준비과정과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직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지난 4년 동안 광주는 위기의 순간에도, 정책 혁신에서도, 미래 준비에서도 늘 달랐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먼저 위기 속에서 보여준 광주의 대응력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광주시청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가 청사 폐쇄를 지시했던 그 시각, 광주시청은 불을 밝혔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항쟁의 본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종교계, 시민사회 지도자, 대학 총장, 시의원, 구청장 등 48명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청으로 모여 비상계엄 무효를 선언했다”며 “이는 어떤 위기관리 때



3월 정례조회서 위기 대응·정책 혁신·AI 중심도시 성과 강조

통합돌봄·10시 출근제 등 광주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 이끌어

복합쇼핑몰·군공항 이전 실행... AI모빌리티 미래산업도시 도약

뉴얼에도 없는 대응이었고, 오월의 DNA가 있는 광주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광주의 선제적 대응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사고 사망자’를 ‘참사 희생자’로 바꾸어 분향소의 제 이름을 찾아줬다”며 “이 결정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고, 광주는 모두를 이끈 ‘퍼스트 팬’이 됐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4년간 광주가 추진한 주요 정책 혁신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한 시간의 마법이라 불리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반값 아침밥’ ▲민간병원과 협력해 공공의료의 혁신을 이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야간 당직 근무를 혁신한 ‘AI 당직기’ 등을 꼽았다.

전광훈 기자



복구, 봄철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추진

산림재난대응단, 순찰기동반 운영 등 예찰 활동 총력

광주광역시 복구(구청장 문인)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빈틈없이 대비한다.

복구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취약지 집중 관리, 초동 진화 태세 확립,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복구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원활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

청명·한식, 어린이날 등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불꽃이나 연기가 발생하면 즉각 반응하는 ‘열화상 지능형 CCTV’ 9대를 24시간 운영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산림재난대응단 19명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순찰기동반 3개 조가 권역별 순찰을 실시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갖춘다.

아울러 무등산국립공원,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해 산불 발생 시 기동별 진화 자원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현근 기자

서구, ‘꿈이 빛나는 공부방’ 추진

이사비·임차료·가구 지원 등 최대 3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아동 주거거점근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꿈이 빛나는 공부방’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구는 2023년 광주광역시 최초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총 44가구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서구는 올해 예산 4천여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이사비와 월임차료, 중개수수료, 아동 맞춤형 가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사가 어려운 가구에는 도배·장판 교체, 정리수납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아동 맞춤형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이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돌봄정책과(062-360-70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최초로 아동주거빈곤 해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구비를 투입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이들의 주거권을 지역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을 넓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 이벤트 ‘럭키 텐텐텐(Lucky 10·10·10)’을 3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연초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기부 흐름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향사랑기부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통해 광주 동구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누적 기부 순서 기준으로 10번째, 20번째, 30번째 등

고향사랑기부 ‘럭키 텐텐텐(Lucky 10·10·10)’ 이벤트

3월 한 달간 매 10번째 기부자에 3만원 상당 답례품 추가 제공

매 10번째 기부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 제공하며, 최대 3,000번째 기부자까지 총 3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기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과는 별도로 한우, 삼겹살·목살, 양념대지갈비, 포기김치, 구운 보리굴비, 참기름 등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4월 6일 발표될 예

정이며,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고향사랑e음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지역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문

/오철수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역 내 소비 촉진 차원에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 46억원을 포함한 3종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는 특례 보증 및 희망 대출을 통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대출금 이자 지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남구, 소상공인 위한 ‘3종 세트’ 지원한다

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과 협력 사업

으로 구성됐다. 먼저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6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달 광주은행과 소

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다가오는 12월에는 관내 새마을금고 5곳 및 신용협동조합 7곳과 각각 희망 대출 지원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금융기관별 지원 규모는 광주은행 24억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11억원, 신용협동조

/임재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